

고비 풀린 환율...원·달러 1500원 향해 지속 상승세

비상계엄·탄핵 정국에 한화 가치 하락...환율 1470원까지 치솟아 외환보유액 4156억 달러...환율 방어 투입에도 전월보다 증가

금융당국이 지난해 12월 원·달러 환율 안정을 위해 외환보유액을 투입한 가운데 외환보유액 4100억달러 선은 방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은 지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조만간 1500원 선을 넘어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지난해 3분기 기준 1300원대에 머물렀던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1월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1400원을 돌파했고, 12·3 비상계엄 직후에는 1470원선까지 치솟았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지난 2009년 3월 이후 15년 9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 같은 환율 상승은 수출 감소, 물가 상승 등을 이끌면서 경제 전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6일 한국은행(한은)이 발표한 '2024년 12월 말 외환보유액'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4156억 달러로 전월(4153억9000만 달러) 대비 2억1000만 달러 증가했다. 미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서 기타통화 외화 자산의 미 달러 환산액이 줄어들었고,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급격히 치솟은 환율 방어를 위해 외환보유액을 투입했음에도 전월보다 오히려 증가한 것이다.

한은은 이에 대해 매분기 말에는 금융기관들의 외화예수금이 증가하는 '분기말 효과'와 더불어 지난해 말 외화 운용수익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말 외환보유액을 자산별로 보면 유가증권이 3666억7000만 달러로 전월(3723억9000만 달러) 대비 57억2000만 달러 줄었고,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한 특별인출권인 SDR은 147억1000만 달러로 1억8000만 달러 감소했다. 같은 기간 분기말효과로 인해 예치금은 191억3000만 달러에서 252억2000만 달러로 60억9000만 달러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직전 해인 2023년 12월 말(4201억5000만 달러)에 비해서는 45억5000만 달러 줄었고, 12월 말 기준으로는 지난 2019년 12월(4088억2000만 달러) 이후 5년만에 최소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고환율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미국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자국우선주의 정책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해에만 미국 달러화의 가치가 2%가량 평가 절상됐지만, 한화 가치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원·달러 환율은 1460원선을 오갔고, 이후에도 대통령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국내 경제 악화로 한화 가치 하락과 더불어 고환율은 지속되고 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6일 기준 전날 증가(1468.4원)보다 1.6원 오른 1470원을 기록했고, 오전 9시 30분 기준으로는 1474.1원까지 상승한 뒤 오후 4시에는 1467.85원까지 하락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5대 은행, 정기예금 잔액 20조원 줄었다

기준금리 인하 영향

지난해 12월 시중은행 및 지역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은행(한은)이 지난해 10월과 11월 연달아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은행들의 예·적금 금리 역시 인하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시중 5대 은행에서는 지난해말 정기예금 잔액이 전월 대비 20조원 이상 줄어들었고, 광주·전남 대표 지역은행인 광주은행 역시 6600억원 넘게 감소했다.

6일 시중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 따르면 정기예금 잔액은 지난해 12월 기준 927조916억원으로 전월(948조2201억원) 대비 21조1285억원(2.2%) 감소했다.

지역에서도 이같은 현상은 뚜렷했다. 광주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13조 6939억원으로 전월(14조3572억원)에 견줘 6633억원(4.6%)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5대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 말까지 7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여왔다. 한

은의 고금리 기조가 지속된 영향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에는 872조8820억원이었던 정기예금 잔액이 11월에는 948조2201억원으로 75조3381억원(8.6%)으로 증가하기도 했다.

이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떠오르면 서 고금리가 적용된 예금에 가입하려는 금융 수요가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연말에는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예·적금 금리 역시 인하되면서 금융 수요가 줄어들면서 예금잔액도 줄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88.64 (+46.72)
▲ 코스닥	717.96 (+12.20)
▲ 금리(국고채 3년)	2.524 (+0.042)
▲ 환율(USD)	1466.70 (-1.70) (오후 4시 56분 기준)

“초개인화된 삶의 동반자”...삼성전자, 비전 AI 공개

자동번역·맞춤 서비스 등 탑재

삼성전자가 5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5' 개막에 앞서 초개인화된 인공지능(AI) 스크린 경험을 위한 삼성 '비전 AI'를 공개했다. <사진> 용석우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사장)은 라스베이거스 시저스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삼성 퍼스트 룩 2025' 기조연설에서 "삼성 AI 스크린은 단순한 시청 기기를 넘어 생활의 중심에서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선사하는 삶의 동반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 퍼스트룩은 매년 CES 개막에 앞서 TV 관련 신제품과 신기술을 선보이는 행사다. 지난해에는 차세대 AI 프로세서인 'NQ8 AI 3세대' 프로세서를 공개하며 'AI 스크린 시대'의 포문을 열었다.

삼성 비전 AI는 기존 TV의 역할을 확대해 사용자의 니즈와 취향, 의도까지 미리 파악, 스스로 스마트한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한다. 한 번의 클릭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 알려주는 '클릭 투 서치', 외국어 콘텐츠 자막의 실시간 번역, 사용자의 취향과 선호도를 반영해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생생형 배경화면' 등의 기능을 탑재했다.

사용자의 생활 패턴이나 기기 사용 이력, 집안의 상태 등을 분석해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적시에 필요한 기능을 지원하는 '홈 인사이트', 가족이나



반려동물의 상태를 살필 수 있는 '패밀리&펫 케어' 등도 지원한다.

삼성전자는 개인 맞춤형 AI인 '비전 AI 컴패니언'도 처음 공개했다. 비전 AI 컴패니언은 사용자의 관심사와 질문을 즉각적으로 시각화해준다. 사용자가 '여행지 제안'을 요청하면 맛집과 일정 주

전, 미술 작품 추천으로 이어지는 개인 맞춤형 경험을 제공하는 식이다.

삼성전자는 마이크로소프트(MS)를 시작으로 구글 등 다양한 글로벌 AI 기업들과 오픈 파트너십을 통해 AI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이마트, 위스키·와인 선물세트 최대 40% 할인

광주점·트레이더스 15일까지

이마트 광주점 및 트레이더스가 다가오는 설을 맞아 오는 15일까지 연말연시 수요가 많은 와인 선물세트 내 단독 상품들을 최대 40% 할인가에 선보인다.

우선 올해 '청사년' 테마의 와인 선물세트를 준비했다. 이마트 앱 '와인그랩'에서 한정 판매하는 '톨라니 발다산터 IGT 2020(750ml)'와 한정판 패키지로 출시된 '조니워커 블루밴드 에디션

(750ml)', '몬테스 알파 카버네소비농 스페셜 베포 에디션' 등을 마련했다.

특히 몬테스 알파 카버네소비농 스페셜 베포 에디션은 이마트 계열사 단독 판매 상품으로, 국내 최초로 누적판매량 1600만병을 돌파한 질레 최초 프리미엄 레드와인이다. 이번 설 대목을 맞아 1만 8000병 한정 판매한다.

트레이더스에서 만나볼 수 있는 위스키 선물 세트들도 선보인다. 대표적으로 트레이더스 단독 상품인 '듀어스 18년(700ml)'와 싱글몰트 위스키

'오반 14년(700ml)'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이마트가 글라스와 가죽 가방 세트로 단독 기획한 '아벨라워 14년(700ml)'을 준비했다. 미국 5대 바번 위스키 중 하나인 '우드포드 리저브(750ml)'는 사전예약시 정상가보다 40% 할인된 6만98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정우선 이마트 마케팅 담당은 "이번 설 명절을 맞아 주류 선물 세트 중 가성비 상품군과, 이마트에서 단독 운영하는 프리미엄 상품군을 모두 강화했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

북광주세무서 신축청사 13일부터 업무 개시

북광주세무서가 보다 나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3일부터 신축청사(사진)에서 새롭게 업무를 시작한다. 신축청사는 기존 청사부지를 활용, 지하1층·지상 5층 총면적 9287㎡ 규모로 지난 2023년 1월 착공한 바 있다.

신축청사 1층에 사업자등록, 국세신고안내 및 상담, 고충처리 등 불복업무를 담당하는 민원봉사실·납세자보호실·국세신고안내센터, 2층에 부가 가치세과·소득세과, 3층에 서장실·징세과·법인세

과, 4층에 재산세과·조사과 등이 입주하게 된다. 북광주세무서는 광주 북구, 담양·장성군의 국세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노현택 서장은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만들고, 경기 회복의 온기를 빠르게 확산시키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 국민과 납세자의 어려움을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을 더 두텁게 펼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